

# 대전 유성구 AI·사물인터넷으로 ‘어르신 건강관리’



1 대전 유성구, 디지털 포용 브랜드 '디지털 유성 IN' 선포 2 키오스크 체험존에서 어르신이 화면을 눌러보며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히고 있다. 3 스마트폰을 통해 질병관리청 쿠브 앱의 QR코드 시스템으로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앞당긴 디지털 중심 세상에서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보건복지부의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에서 대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만성질환 관리나 식생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6개월간 스마트폰과 연동한 손목형 활동량 측정계와 체중계,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을 제공하고, 보건소 전문 인력이 주기적으로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관내 어르신 270명이 앱과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받고 있다. 올해는 330명을 추가 선별해 600명까지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는 또 경기 부천시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에 선정돼 경로당에 비대면 화상회의 인프라 구축과 지능정보서비스를 시범 적용한다.

예산 14억 원으로 스마트경로당 64개소를 구축하면 어르신 2천100여 명이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와 스마트 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 모니터 단말기를 설치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와 AI 통합 돌봄 서비스 등을 추진 중이다.

구는 지난해를 디지털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유성형 디지털 포용 브랜드(디지털 유성 IN)를 출범해 디지털 배움터 운영(18개소), 행정복지센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강좌, 찾아가는 디지털 자원봉사단 '코로나대응 IT 지원단', 스마트 5060 청춘대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디지털 포용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역량 경진대회를 비롯해 어르신 디지털(키오스크·QR코드) 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신노년층 맞춤형 디지털 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선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강관리 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스마트 기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